

# 발간사

유네스코가 2003년에 채택, 결의한 「무형유산보호협약(Convention)」의 11조는 각국 정부가 공동체와 단체, 그리고 비정부기구(NGO)들과 협력하여 무형유산의 종목들을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협약 9조는 유네스코의 협약총회나 정부간위원회가 자격이 있는 NGO들을 등록시켜 무형유산보호정책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지침에는 공동체와 NGO들이 정부와 함께 무형유산 보호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들이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채택되기 전부터 여러 나라에서는 많은 NGO들이 이미 각종 무형유산 보호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국제적 연대나 조직적인 협력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협약총회에 등록된(accredited) NGO들이 협약총회나 정부간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옵저버(Observer)로 참여하면서 정보교환을 위한 모임(Forum)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보화와 더불어 네트워킹의 임무를 가진 우리 아태센터 ICHCAP으로서 정부 간 협력이나 공동체, 전문가들의 협력 네트워크뿐 아니라, NGO들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어떤 NGO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시켜야 할지가 막연했습니다.

2013년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모인 제8차 정부간위원회에서 NGO Forum의 대표자들인 디에고 그라디스, 유레인 내릭, 아난야 바타차리아, 에밀리 드라니 등과 함께 협의하면서 NGO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우선 아태 지역의 NGO들을 중심으로 국제회의를 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4년 3월에는 서울에서 한국 내 ICH-NGO들의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면서 NGO Forum의 지도인사 네 명을 모두 초청해 각 대륙에서의 경험들을 나누었고, 함께 세미나를 조직하기 위한 기획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침내 무형유산 비정부기구(ICH-NGO)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2014년 6월26일부터 28일까지 전주에 소재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NGO들의 효율적 역할(Towards Efficient Roles of NGOs for Safeguarding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이라는 주제로 아태지역 NGO 관계자 30여 명과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지의 NGO 대표자 10여 명, 한국의 NGO 대표자 10여 명 등 50여명의 NGO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그 동안의 활동 경험을 나누고 정부와 공동체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NGO들의 역할에 대해 유익한 토론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세미나에서 발표된 발제문과 토론문, 그리고 활발했던 토의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이틀 동안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NGO들의 활동보고와 경험을 들으면서 우리는 ICH-NGO들의 매우 다양한 역할과 활동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고, 바로 이러한 다양한 모습 때문에 무형유산보호에 있어 NGO의 활동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동체와 밀착된 NGO들이 있는가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여러 단체와 개인을 도와주는 NGO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활동만 하는 NGO들과 더불어 국제적, 지역적으로 활발한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는 NGO 등 다양한 NGO들이 있어 그 역할과 기능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거나 유형을 나누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모임과 토론을 통해 무형유산보호와 전승,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ICH-NGO들의 모습을 대략적이거나 파악할 수 있었고, 매개자(mediator)의 역할, 지원자(supporter)의 역할, 교육자(educator)의 역할과 함께 이러한 장을 마련하는 역할(facilitator)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며 연대, 협력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 것이 이번 모임의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록물이 앞으로 기대되는 NGO 활동의 강화와 국제적 연대 사업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태지역뿐 아니라 모든 지역의 NGO들의 연대 강화에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무형유산 NGO 국제회의의 참석을 위해 멀리 전주를 찾아 주신 모든 분과 아프리카, 남미, 유럽, 아시아의 20여 개 국가에서 와 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NGO의 효율적 역할이라는 회의 주제에 맞춰 유네스코를 대표해 기조발제를 해 주신 팀 커티스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문화부장님, 브라질에서 와 주신 캄파나스 주립대학 안토니오 아란테 교수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이 회의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해 주신 NGO Forum의 지도자들과 여러 관계자들도 깊은 감사의 뜻을 포함합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이 삼 열